

책과 함께 행복 속속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식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부 장난감도서관

▲남원 꿈나무들의 새로운 요람

남원시는 지난 7월 25일 1454㎡의 면적에 지상 3층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갖춘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에 당선되며 건축에 들어간 것으로,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교육과 학습환경 조성은 물론 다양한 계층 간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장애인과 임산부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BF)인증을 받아 설계가 이뤄진 점은 백미라 할 수 있다.

▲3층의 각 구성

1층은 부모님들과 유아들이 이용하는 유아자료실과 수유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어린이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없앤 게 특징이다. 또한 기존 도서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난

감 대여소도 있으며, 회원에 가입하고 연회비 만원이면 언제든지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도서관이 문을 열자마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층은 어린이 자료실, 일반자료실, 상상서가, 휴게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한쪽에서 건물 천장까지 닿아있는 상상서가 는 보는 이를 압도하게 만들며 눈길을 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상상서가'라 이름 붙인 이곳은 앞으로 수많은 책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3층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동아리실, 전시실, 강의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활동과 여가활동까지 해결할 수 있는 멀티 문화시설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기존 도서관들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현재 남원 시내에는 이번에 새롭게 건립된

남원시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도서관은 진정한 미덕으로 가득한 고대 현인의 모든 유물이 그리고 현혹과 기만이 없는 모든 것이 보존되어 인식하는 신전이다"라고 도서관의 위대함을 찬양한 바 있다. 최근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바로 공공도서관 1관당 지역인구수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4만9692명으로 선진국인 독일(1만1151명), 영국(1만5465명), 미국(3만4301)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남원시가 먼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나선 것이다.

생활환경 인증 받아 설계 이뤄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유아·어린이·청소년 시설 준비돼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서관 역할 기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포함해 남원시립도서관, 남원교육문화회관 등 총 3개의 공공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하정동에 위치한 남원시립도서관은 시설환경개선과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임시휴관에 들어간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내년 3월이면 남원지역에는 시내에 권역별, 연령별 수준에 맞는 도서관을 갖추게 되어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사이의 빈틈은 작은 도서관이 메꾼다

최근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다지만 책의 가치는 여전히 빛을 발한다.

이에 남원시가 현재 운영 중인 12개의 작은 도서관은 (건물면적 33㎡ 이상, 1,000권 이상의 장서, 열람석 6석 이상이 최소 기준)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수많은 정보들이 난립하게 되면 그 정보를 분류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앞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책과 도서관의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함양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원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사업이 남원 문화발전의 뿌리가 될 꿈나무들의 요람이 되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내면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딧불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